

바지락

 **전국금속노동조합**

반월산단 노동자 공동 휴게실
'누구나 쉼터'
모든 노동자의 쉼 권리 보장



최저임금 인상, 체불임금 해결, 금속노조와 함께 바꿔보요

최저임금법 제1조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목적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저의 임금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생활임금’이라는 형태로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지와는 달리 최저임금은 이제 ‘국민월급’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최저의 임금이 보편적인 월급이 된 것입니다. 특히 중소 영세사업장이 많은 산업단지에서는 최저임금이 보편적인 월급이 된 지 오래입니다.

또한 2019년부터 최저임금에 상여금, 숙식비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이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최저시급을 따져보면, 법에서 정한 최저 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결국 최저임금이 올라도 내 월급은 정작 오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작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고작 1.7%였는데다가 지난 정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월급이 오히려 삭감된 겁니다.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어렵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은 이미 불안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을 만들고 매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6월 28일까지 결정됩니다. 올바른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앞장서겠습니다.



월급이 밀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지난해 체불임금 규모가 역대 최대인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임금 체불은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의 문제이며, 삶이 파탄 날 수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런 임금체불을 노동자 28만 명 이상이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임금 체불의 대부분이(체불액 70% 이상, 임금체불 노동자 80% 이상)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소, 영세 업체 저임금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의 고통까지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너무 미미한 수준입니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는 했지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무엇보다도 고통받고 있는 체불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보완되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망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도산대지급금) 그렇지 않더라도 퇴직 노동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간이대지급금) 대지급금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제도는 체불된 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우선 현행 대지급금의 규모(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또는 최종 3년 간의 퇴직금)와 생계 목적으로 정부가 긴급하게 지원하는 간이대지급금의 상한액(최대 1,000만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임금 체불 대상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임금체불과 관련한 법·제도를 국가가 개선해야 합니다.

체불임금. 일했으면 받아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체불임금 문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금방이가 말하는 '2025년 4월 4일, 그날 이후 우리의 노동은?'

: 최저임금 인상, 체불임금 정부 해결, 장시간 노동 근절,
대선 투표일 모두에게 공휴일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금속노조 마스코트 '금방이'입니다. 저는 금속노조에 가입해서 윤석열 퇴진을 위해서 퇴근한 뒤에도, 주말에도 응원봉을 들고 거리에 나왔어요.

민주주의를 뒤흔든 윤석열을 탄핵해서 다행이지만, 여전히 우리 일터와 삶은 팍팍하기에 앞으로 우리 사회에 바뀌나갈 것이 많이 보여요.



금속노조 마스코트 '금방이'

이제 광장의 민주주의를 한국 사회 변화의 힘으로

이번 계엄과 탄핵 같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수백만 명의 시민이 모았던 힘을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연결해야 해요. 대통령이 누구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팍팍한 삶을 바꿀 수 있는 변화, 그를 위한 정책이 더 중요해요. 정권이 바뀌어도 노동과 관련된 법과 제도, 정책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라면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을 테니까요.

최저임금 인상, 체불임금 문제부터 정부가 해결하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폭탄을 터트리고, 뉴스에선 한국 경제는 점점 안 좋아진다고 해요. 당장 점심값만 해도 부담스러운데, 생활 물가는 쭉쭉 올라가고 있고요. 윤 정부 동안 최저임금 인상은 대폭 억제되었지요.

정부가 바뀐다면 우리의 임금과 밀접한 최저임금부터 인상되어야 해요. 그리고 회사가 어려워지니 임금체불이 속출하고 있어요. 일했으면 최소한 먹고 살 수는 있도록 임금 체불 문제를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해요.

장시간 노동 근절, 야간 노동 금지하자

그 뉴스 보셨어요? 정부가 반도체산업을 살린다고 주52시간 노동을 64시간으로 확대한대요.

어떤 사람들은 주 40시간 일하며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고 있는데, 주 64시간을 일한다는 소식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특히 야간 노동은 수명을 줄일 정도로 나쁜 유해 요인이라고 유명하대요. 차기 정부는 노동시간을 주 52 시간에서 더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야간 노동부터 줄여야 한다고 봐요.



6월 3일 대선 투표일을 모든 노동자에게 임시공휴일로 하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뽑을 때는 공휴일이라 하루 쉬면서 투표를 할 수 있죠. 하지만 법적으로 5인 미만 영세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임시공휴일이 아니라 그냥 출근해야 해요. 출근하더라도 5인 이상 업체와 다르게 휴일수당도 받을 수 없어요. 대리운전 기사, 라이더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공휴일에도 쉴 수가 없어요. 이걸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우리 모두 다 투표권을 가진 시민인데,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고용 형태에 따라 다르다니요.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합니다. 그렇다면 투표일인 임시공휴일도 모든 시민에게 보장되어야 하지 않나요? 모든 노동자에게 휴일이 똑같이 보장되지 않은 지금은, 똑같은 시민이지만 일하는 사업장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차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제 한국 사회가 새출발하는 시점이에요, 하지만 모든 것이 '금방'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저 금방이도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일과 삶을 정말 바뀌어나가려면 열심히 싸워내야 할 것들이 많아요. 앞으로 저도 금속노조와 함께 더 나은 노동 환경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누구나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 반월산단 노동자 공동 휴게실

‘누구나 쉼터’

1. 반월산단 노동자 공동 휴게실 ‘누구나 쉼터’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쉼터는 이름 그대로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 누구나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반월산업단지 내 1호! 공동 휴게실입니다. ‘누구나 쉼터’라는 이름도 노동자들이 직접 작명에 참여한 공모를 통해 선정한 것입니다. (아직은 지도 앱에 올라와 있지 않지만) 원시역에서 도보 5분~7분 거리에 있습니다.

내부에는 편안한 소파와 잠시 눈을 붙일 수 있는 침대까지 있다는 사실! 사업장에 제대로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이 없는 노동자들이 와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열심히 꾸린 공간입니다. 더울 땀 무더위쉼터로 몸을 식히고, 추울 땀 한파 쉼터로 몸을 녹이고, 편히 앉아 잠시 차 한잔,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언제나 누구나 찾아와도 되는 편안한 안식처입니다.

2. 어떤 계기로 노동자 공동 휴게실을 만들기로 결심하게 되셨나요?

2022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과 현실의 괴리가 컸습니다. 작은 사업장은 공간이 없거나 비용이 없어서 휴게실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산업단지 안에 공동 휴게실을 두면 노동자들의 휴게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3. 만드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안산시가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를 설득하고 협의하는 과정에는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를 비롯한 지역의 노동단체들은 2022년 <반월 시화산업단지 노동자 휴게실 사업단>(이하, 사업단)을 결성하고 휴게실 문제를 노동자 건강권 문제로 바라보고, 안산시, 시흥시 등 지방정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 고용노동부 등 중앙정부, 사용자 단체에 휴게실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이슈화시키기 위해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사업단의 4년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2024년 안산시에서 산업단지 내에 공동 휴게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4. 공동 휴게실 외에도 반월산단 노동자들을 위한 많은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사업단에서는 공동 휴게실 외에도 여러 가지 노동 의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반월시화산단 노동자 조식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 (사)안산노동안전센터 실태조사 결과 반월시화산단 노동자의 1/3이 여러 가지 이유로 아침밥을 굶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산시가 올 하반기에 3천만 원 예산을 들여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아침 조식을 무료로 나눠주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속노조 시흥안산지역지회 커피트럭 ‘모두카페’를 활용하여 간단한 간편식과 커피 등 음료를 함께 제공할 계획입니다.

더 나은 직장 생활을 위한
길잡이 「바지락」
QR코드 스캔하고 나의 권리 찾자!



공단노동자신문 <바지락> 지난 호 보기

알아두면 유익한 실전 노동법과 다양한 정보
지난 <바지락> 내용이 궁금하다면? 찰칵!



민주노총 노동상담 페이지

누구나 쉽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노동 상담받고 싶다면? 찰칵



금속노조 소개

금속노조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면?
SNS에서 금속노조의 사진과 영상을 보고 싶다면? 찰칵!

**나와 우리의 일터를 바꾸고,
삶과 미래를 바꾸는 가장 큰 힘, 노동조합
금속노조와 함께 당신의 삶과 일터를
바꾸어보아요.**



망설이지 말고 연락하세요!

최저임금 위반 · 임금체불 · 부당해고 · 직장갑질 · 산재사고
무료 노동 상담 · 가입 문의 ☎ 1811-9509